

정연주 前사장 20일께 불구속 기소

■ 검찰, 특경가법상 배임죄 적용 예정

법원, 금주 내 해임처분 집행 정지 여부 결정

정연주 전 KBS 사장의 배임 혐의 고발 사전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박은석 부장검사)는 오는 20일께 정 전 사장을 특경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18일 “정 전 사장에 대한 징계까지의 수사가 정리되는 대로 오는 20일이나 21일 그를 재판에 넘길 예정이며 방식은 불구속 기소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검찰은 대검찰청 회계분석팀의 배임액 산정 결과를 근거로 그가 KBS에 1천890억여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확정하고 특경가법상 배임죄를 적용할 예정이다.

특경가법은 배임액이 50억원 이상이면 무

기징역이나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 전 사장은 2005년 국세청이 부과한 2천300억원의 법인세 등에 대해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을 진행하던 중 1심에서 승소하고도 일시적인 적자를 메우기 위한 일환으로 항소심 과정에서 500여억원을 환급받기로 합의한 뒤 소송을 취하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한편,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정형식 부장판사) 하이훈 판사는 18일 정 전 사장 측과 이명박 대통령 측을 불러 해임처분의 집행을 정지시킬 필요가 있는지를 심문한 뒤 이번 주 안으로 인용 또는 각각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대검찰청 회계분석팀의 배임액 산정 결과를 근거로 그가 KBS에 1천890억여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확정하고 특경가법상 배임죄를 적용할 예정이다.

특경가법은 배임액이 50억원 이상이면 무



정연주 전 KBS 사장이 낸 해임처분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질지 여부가 이번 주 결정될 예정인 가운데 18일 서울행정법원에서 정 전 사장 층 대리인들과 이명박 대통령 층 공동수

행자인 서울고검 관계자들이 심문을 준비하고 있다. /연합뉴스

재판부는 집행정지 신청이 접수된 지 일주일 만에 심문 일정을 잡았으며 심문에는 손소송 결론이 나올 때까지 KBS 사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李대통령 “내년 연말쯤 경제회복 기회”

야후닷컴 인터뷰 “공기업 개혁 등 제도개선 일관되게 추진”

이명박 대통령은 18일 “내년 연말쯤 되면 경제가 회복될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1년 정도 이상 힘들지만 견뎌나 가자는 부탁을 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세계적인 포털업체인 애후닷컴과의 인터뷰에서 이 같이 말하고 “불가능한 시민들을 굉장히 부담을 주는 것이 사실이나 정부 정책은 물가 억제에 가장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미국 정치지도자에 대한 인터뷰를 해온 애후닷컴은 전세계 지도자를 대상으로 하는 인터뷰의 첫 상대로 이 대통령을 선정했으며, 인터뷰 내용은 애후의 글로벌 네

트워크를 통해 전세계에 중계됐다.

이 대통령은 최근 한국은행의 금리인상과 관련, “불가피했던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면서 “그러나 금리 충격을 완화시키는 정책을 확고히 밀고나갈 각오를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최소한 내 생애에 통일을 볼 수 있는 것은 틀림없는 것 같고, 어느 시기에 갑자기 닥쳐올지 모르는 만큼 항상 통일에 대한 준비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747공약(연평균 7% 성장·국민소득 4만달러·7대강국 진입)”에 대해 “당장 금년의 이야기가 아니고 10년내에 이를 수 있는 목표를 내세우고 있는 것”이라며 “목표를 달성을 수 있는 성장잠재력을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내다봤다.

특히 이 대통령은 쇠고기 파문에 대해 “국

정을 운영해 나가는데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한 것이 사실이고 앞으로 국정에 참고가 된다고 생각한다”면서 “공기업 개혁과 제도개선 등 국가 발전을 위해 올바른 길이 있다면 다소 조금 힘들더라도 일관되게 정책을 확고히 밀고나갈 각오를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최소한 내 생애에 통일을 볼 수 있는 것은 틀림없는 것 같고, 어느 시기에 갑자기 닥쳐올지 모르는 만큼 항상 통일에 대한 준비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미국 대선에 대해 “누가 대통령이 돼도 한미 정책에 변함이 없을 것이기 때문에 상관없다고 생각한다”면서 “당선되고 나면 어느 누구든지 한미 FTA(자유무역협정)를 지지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한 ‘고질병’에 국민 실망”

인명진 前한나라당 윤리위원장

인명진 전 한나라당 윤리위원장은 18일 최근 잇따른 여권의 비리 사건에 대해 “집권하고 그려지 말아야 하는데 ‘결국 고질병이 터졌구나’하고 국민이 많이 실망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 전 위원장은 이날 한 방송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 “국민 기억 속에 한나라당은 ‘차폐기 당’이라고 해서 부패 이미지가 남아 있었는데 결국 이런 일이 생겼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런 때 한나라당이 단호하게 대처하는 모습을 보여야 하는데 예전과 같은 그런 모습을 볼 수 없다”며 “부정부패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해야 국민이 안심을 하는 데 지금은 그려지 않아 그동안 한 것은 선거 때문에 보이기 위한 것 아니었느냐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고 비판했다. /연합뉴스



답했다.

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건과 관련, 박 의원은 “북한은 이 사건이 터지자마자 유감표명을 했고 제3국을 통해서 ‘신참이 실수를 했다’고 전해온 것으로 알고 있다”며 “우리 경계선들이 오늘 이 사태를 만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나아가 “엊그제 이 대통령의 8·15 경축사에서도 (남북관계에 대한) 특별한 진척이 없어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이 대통령이 6·15 공동선언과 10·4선언을 준수하겠다. 북한 당신들도 금강산 사건 진상조사에 응하고 대화에 응하라”는 진전된 자세를 보이는 것이 큰집, 형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박 의원은 “현 정부가 금강산 관광객 피살사건이 나기 전과 난 후 모두 김 전 대통령측에 의견을 구했던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현 정부 DJ측에 대북특사 의견 구해”

박지원 의원 ‘대북관계’ 조언

민주당 복당이 사실상 확정된 박지원(사진) 의원은 18일 대북특사 과정과 관련 “이명박 대통령이 직간접적으로 김대중 대통령이나 저에게 의견을 구한 적이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 “이 대통령이 북측과 대화하기 위해서는 특사파견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의원은 또 김 전 대통령이 “특사는 이 대통령의 생각을 가장 정확하게 대변할 수 있고 향후 5년간 이 대통령과 일할 사람이 가야 북이 신뢰할 것”이라며 “과거 정부에서 이런 경험을 했던 임동원 전 국정원장이나 박지원 비서실장, 서훈 전 국정원 3차장 이런 분들도 간접적으로 도와줄 수 있을 것이다”라고 조언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이상득 의원이 특사로 적합한지”에 대한 질의에는 “제가 이상득 의원님을 말씀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이 대통령께서 심중에 두고 있는 분이 계실 것”이라고



답했다.

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건과 관련, 박 의원은 “북한은 이 사건이 터지자마자 유감표명을 했고 제3국을 통해서 ‘신참이 실수를 했다’고 전해온 것으로 알고 있다”며 “우리 경계선들이 오늘 이 사태를 만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나아가 “엊그제 이 대통령의 8·15 경축사에서도 (남북관계에 대한) 특별한 진척이 없어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이 대통령이 6·15 공동선언과 10·4선언을 준수하겠다. 북한 당신들도 금강산 사건 진상조사에 응하고 대화에 응하라”는 진전된 자세를 보이는 것이 큰집, 형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박 의원은 “현 정부가 금강산 관광객 피살사건이 나기 전과 난 후 모두 김 전 대통령측에 의견을 구했던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교육감도 주민이 소환”

이용섭 의원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 발의



했다.

이용섭 의원은 “교육감의 자의적 권한 행사와 교육자치의 비효율적·비합리적인 운영 등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경제기반이 미약한 실정이다”며 “교육감의 부당행위, 직무유기, 직권남용 등에 대한 적절한 경제를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대학편입 10명중 7명은 김영출신

www.kimyoung.co.kr

대학편입 김영에 막겨라!

일반편입/ 학사편입/ 사범대편입/ 한의대편입/ 의약대편입

매일 공개설명회 10시/ 2시/ 4시/ 6시

★ 2009편입대비 강좌안내 ▶ 종합영문법, 어휘이론, 독해이론, 논리완성, 기초입문 수험생을 위한 M T, 자기점검을 위한 주간 TEST/ LEVEL TEST/ 월간 TEST



상위권대학편입 전문학원

김영 대학편입학원

광주 동부경찰서 뒤 227-8088

공인중개사 전문학원

서구점 ☎ 361-8111
북구점 ☎ 268-8111

교수진 전원 서울에서 출강! 저자직강! 한국경제TV · 부동산TV강사진

19회시험 10월26일, 원서접수 8월18일 ~ 8월27일까지 본학원에서 원서접수 대행해드립니다.

개 강 9월 1일
동형문제풀이 9월 1일 ~ 9월 12일 (1단계 워밍업)

●전국 최대규모의 공인중개사 전문학원(전국33개 학원체인) ●최고의 교수진들로 강의 잘하는 학원 1위 ●신체합격자분들이 추천한 1등학원 ●믿을과 신뢰를 주는 학원 1위

합격률 1위 전국수석 학원 내총 행정고시학원

서구점 ☎ 361-8111
▶농성동 서구청 앞 광주은행 건물 2층
북구점 ☎ 268-8111
▶학경마전, 오자동 북부경찰서 건너편 새롬빌딩 4층

44년 전통!! 본원출신 전국수석 배출!! [평균 96.7점] 합격률 1위!!

공인중개사 최종문제풀이 특강 9월 1일

시험에 꼭! 출제되는 염선된 문제 뚝딱제기 기준!! 합격률 드러냈습니다!

19회 공인중개사 1차 시험합격을 위한

1차 진검승부 “절대한경비” 수강생 모집

● 개강 : 9월 1일 ● 모집인원 : 선착순 50명 (조기미감유의) ● 강의일정 : 9월 1일 ~ 10월 17일

● 강의장소 : 본원 (제주 월, 수, 목 오후반) 첨단 (제주 월, 화, 목 아간반)

● 수강료 : 200,000원 (경복출판사 문제집 포함)

● 교수 전 : 민암 신방재교수, 학개론 신관식 교수



공인중개사 전문 www.landkor.com

본 원 ☎ 227-8003 (구)도청 앞 전일빌딩 뒤

첨단점 ☎ 971-0002 (구)백마역 첨단점 뒷 광주은행 4F

한의대 유학! 국내에서 가능!

유네스코 인정
정규 대학교

SCU한의대

www.scukorea.com
문의전화
010-6834-6253

캐나다, 미국
한의사가 될수있습니다!

취업 고민해결! 아메리카대륙에서 성공을!
입학상담/설명회 매일 오후 3시, 4시

= '09년 公務員 시험에 합격이 유력한 개강이 9월 1일입니다. 無等과 함께 합격의 꿈 '꼭'이루시길 바랍니다.=

7·9 급 공무원 합격 강좌

◎ 강좌직종 : 행 교 세 관 법 검 철 교 보 보 복 군 토 건 전

◎ 강좌 개강 : 9월 1일 (주) 아간반 모집 (현재 예약접수중)

◎ 합격 회원 모집 : ① 6개월 (주)회원 80만원
② 1년 (정)회원 120만원
③ 합격 시까지 170만원

= '귀하의 합격을 위해 강(感)이 좋은 학원! 「無等」을 찾아주세요!! =

무등고시학원

www.mdgosi.co.kr ☎ 222-4560